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유한건강생활, 진균류 상용화 업무협약



유한양행 자회사·프리미엄 헬스&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전문 조석훈 장흥부군수 "진균 관련 기업 활용 지원 센터 구축 할 것"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진균 자원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위해 (주)유한건강생활과 손을 잡았다.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3일 (주)유한건강생활과 상호간 업무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유한건강생활은 유한양행 자회사이자 프리미엄 헬스&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협약식에는 조석훈 장흥부군수, 박일범 (주)유한건강생활연구소장, 박승배 (재)장흥군버

섯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서는 진균류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과 제품 산업화, 장흥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키로 했다.

진균류는 포자나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버섯, 사상균, 효모 등의 미생물 군을 일컬으며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국내 유일 진균류 상용화

생산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조석훈 장흥부군수는 "실질적으로 진균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구축하겠다"며 "표고를 비롯한 진균 관련 기업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범 유한건강생활 소장은 "유한건강생활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소재를 발굴하고, 이로부터 유효성분 기능성을 검증해 높은 순도로 추출하는 가공기술 등을 연구 및 투자해 독보적인 유한천연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진균에 대한 연구와 제품 산업화를 돕고 장흥군의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흥=김도영기자

진도군, 교양 강좌 '군민 행복 아카데미' 개최

문주란 박사 초청...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 주제

진도군이 올해 처음으로 군민 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민선 8기 군민과 함께하는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도군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진도군청 대회의실

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대상 강좌인 군민 행복 아카데미는 세계적 꽃피는 꽃길, 꽃동네, 꽃섬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

성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열었다.

문주란 박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를 강사로 초청, 2시간 동안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희토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을 통해 진도군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등 군민 의식·문화적 소양 향상을 위한 군민 대상 강좌인 군민 행복 아카데미를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군 자체 모범 납세자 선정' 혜택 제공

개인 3·법인 1명...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완도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연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추가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3천 이상인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열릴 '제57회 모범 납세자의 날'에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모범 납세자 3명(개인 2, 법인 1), 완도군에서 자체 선정된 모범 납세자 4명(개인 3, 법인 1)에게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와 표창장 수여,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면제, 각종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군민께 감사드리며,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군립미술관 '공재 미술' 중심으로 건립

녹우당 종손 윤성철씨와 업무협약 체결, '군립공재미술관'명칭 예정

해남군 군립미술관이 '공재미술'이 중심이 되어 해남 미술이 공존하는 미술관으로 건립된다.

해남군은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군민 공청회 및 미술단체 간담회,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같은 건립 방향을 설정하고, 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미술관 부지는 해남읍 연동리로 확정하였으며, 시설 명칭은 해남군립공재미술관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될 미술관은 공재 선생의 국보·보물 등 작품과 근현대 해남미술 작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관 설립협의를 진행한 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했으며, 3월중 현장실시를 거친 후 4월 중 사전평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해남군과 해남윤씨 종가 종손 윤성철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군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시설 조성, 유물의 보존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유물소유자는



미술관 개관 이전에 해남군에 유물을 기탁 등 제공하여 미술관 내 전시, 수장 및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 시에는 유물소유자가 참여해 미술관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해 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술관 건립이라는 군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공재 선생과 유물의 수준에 맞는 미술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다산 정약용' 인연 강진 도암면- 포항 장기면 자매결연

전남 강진군 도암면(면장 김동진)과 경북 포항시 장기면(면장 정종영)은 지난 22일 도암면 사무소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진군 도암면과 포항시 장기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길'이라는 공통점으로 인연을 맺었다. 다산 선생이 신유박해로 장기에 유

배되었다가, 그 해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군 도암면에 유배 오신 것에 착안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진군은 포항시를 강진청자축제 행사에 초대하고, 오는 4월 포항 장기유배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